

보호장구 없이 출전 아이티 태권도 선수·찢어진 신발로 뛰는 바베이도스 육상 선수

“광주는 희망의 땅..가난도 내 꿈 못막아”



“자세 어때요?” 카리브해의 최빈국 아이티에서 ‘나 홀로’ 광주 U대회에 참가한 알티모스(26·태권도 대표)가 6일 선수촌 숙소 앞에서 그동안 애지중지 아껴온 새하얀 태권도복을 꺼내 입고 환하게 웃고 있다. /특별취재단=나명주기자 mjna@

코치·동료 없이 나홀로 출전



전 세계 대학생 을 립픽인 20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광주 U대회)에서 가난과 질병 등 각종 역경을 딛고 참가한 선수들의 가슴 뭉클한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2·3·4·5·8·17·21면〉 카리브해 최빈국 아이티에서 ‘나 홀로’ 광주 U대회에 참가한 알티모스(26·태권도 대표)는 6일 “세계적인 태권도 선수로 성공해 홀로 남은 어머니(62)를 건강히, 편히 모시는 것”이라며 자신의 꿈을 당당히 밝혔다. 알티모스는 자국 아이티의 경제난 탓에 코치는커녕 동료 선수 한명 없이 대회에 참가했다.

알티모스는 지난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당시 가장인 아버지를 잃은 뒤 어머니와 단둘이 힘든 삶을 꾸려왔다. 최근 어머니마저 알 수 없는 두통으로 쓰러지면서 생활고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극심한 가난도 알티모스의 꿈을 꺾지 못했다. 지난 2006년 태권도 1단을 딴 그는 태권도 중추국에서 열리는 광주 U대회에서 입상 후 태권도 스타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다.

알티모스는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나 홀로’ 참가한 탓에 대회

참가에 필수인 몸통 보호대 등 보호 장구조차 없다. 이번 대회 때 입으려고 아끼고 아낀 새하얀 태권도복만이 알티모스의 유일한 태권도 장비다.

오는 10일 첫 시합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중인 알티모스는 “주변 선수들에게 보호장구를 빌려서라도 꼭 출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바베이도스 출신 육상선수인 펠런 포르데의 사연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육상화차장 장만하지 못한 포르데는 다행히 동료가 신던 신발을 받아 출전했지만, 그마저도 훈련 중 찢어져 광주 선수촌 인근 구두방에서 수선을 받아 신고 있다.

포르데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도 이미 큰 것을 이뤘으며, 올림픽에도 꼭 출전하고 싶다”며 활짝 웃었다.

한국의 나사렛대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칼림마바 모흐루(타지키스탄)도 어려운 집안 형편 탓에 운동 후 저녁 늦게까지 식당 청소 등을 병행하면서 운동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인천아시아게임에서 타지키스탄 최초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모흐루는 이번 대회에서도 태권도 해비급 메달을 노리고 있다.

후주의 팬싱선수 사이먼 케이폰은 질병을 이겨낸 주인공이다. 대만에서 태어났지만, 호주로 이양된 그는 팔꿈치 부상과 림프암 수술을 받고 메달 획득의 꿈을 키워내고 있다.

/특별취재단=박기용기자 pboxer@

알립니다



2015 청소년 축제에 오세요

8월 1일 광주 상무지구 ‘Fantasy4 뮤직페스티벌’ 특설무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열립니다.

광주일보보는 오는 8월 1일 상무지구 조각공원 옆 ‘Fantasy4 뮤직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제4회 청소년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밴드, 댄스, 풍물 등 공연예술 분야 경연과 학교 폭력 척결 영상 공모전, 학교 폭력 예방 포스터 공모전 등이 펼쳐지며 각 대학 인

기 밴드 및 공연팀의 특별 공연도 진행됩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는 전국 대학의 입학 홍보관도 운영돼 중·고생들의 진로와 대학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성원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8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 장소 : 상무지구 조각공원 옆 ‘Fantasy4 뮤직페스티벌’ 특설무대
- 경연부문
 - 공연예술분야(밴드, 댄스, 풍물, 기타공연)
 - 학교폭력 척결 영상 공모전
 - 학교폭력 예방 포스터 공모전
- 참가자격 :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해당 연령대 청소년
- 참가비 : 무료
- 참가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55
- 주최 : 광주일보, (사)아시아문화
- 특전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광주지방경찰청장상 시상

光州日報社

여권보다 국내 관광지도 꺼내보자

올 휴가는 대한민국의료!

9~11일 명품 관광대전

한국 관광산업이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메르스(MERS)사태 여파에 일본의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사이 한국관광의 ‘큰손’으로 불렸던 중국인 관광객 일명 요우커는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7~8월 여

메르스·엔저 관광산업 ‘이중고’ 내수부진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 해외 아닌 한국관광지 찾아가야

를 성수기가 포함된 올해 3분기 관광산업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관련기사 7면〉 관광산업의 침체는 내수부진으로까지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현실 속에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올 여름 휴가만큼은 국민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 관광지를 선택해 주길 바라고 있다. 외환위기 시절 외환 보

유액을 높이기 위해 온 국민이 동참했던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하나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31일간 방한예약을 취소한 외국인은 모두 13만644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여행 성수기인 7~8월에 방한하려 국내 패키지 관광 상품을 예약한 외국인은 20만2541명(지난 달 22일 발표기준)이다. 전년 동기인 112만9536명과 비교하면 무려 82.1%나 감소했다. 추정 손실액은 1085억원에 이른다. 아직 정확한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달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수 역시 지난해 6월(127만362명)과 비교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7~8월 여름 성수기가 포함된 올해 3분기 국내 관광산업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전망조사에 따르면 업황 전체의 기업경기실사지수(BIS·Business Survey Index)가 모두 100이하로 나타났다. 값이 100이하면 경우 부정응답 업체수가 긍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줄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메르스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상대적으로 국내 관광지들이 소외 받고 있는데 이쪽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관광산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日, 강제노동 ‘번역 품수’로 몰타기

‘일하게 됐다’로 표현

군함도 등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일본 정부가 자국 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의 일본어 번역본에서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에 몰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8면〉

일본의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대사는 5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 회의에서 영어로 정부 성명을 읽으며 “1940년대 몇몇 시설에서 많은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강요받았다(forced to work)”고 말했다. 여기서 ‘강제노역’을 의미하는

‘forced to work’라는 표현과 관련, 일본 정부가 언론에 제공한 가번역은 ‘일하게 됐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수동형 표현인 ‘하타라카사레타’였다. 영어 표현 ‘forced’는 명확히 강제성을 담고 있지만, 일본어 표현 ‘하타라카사레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일하게 됐다’ 정도의 뉘앙스를 담은 표현이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가져와 피부에 닿을 때마다 빛나는 빛이 되게 하고 속속히 어린 피부를 되찾아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